

#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Preschoolers' Attachment Security and Social Competence.

안동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박응임

Dept. of Home Management, Andong National Univ.  
Full-time Instructor : Park, Ung Im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해석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preschoolers' attachment security to their mother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The sample were 44 mothers and their 49-56 months old preschoolers. The instruments for this study were the modified IPBI(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other Form), the Attachment Q-set by Waters and the modified ISCS(Iowa Social Competence Scales: Preschool Form).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t-test, Pearson's r,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ajor findings were that the responsive maternal parenting behavior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preschoolers' attachment security. The guidance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 was positively related preschoolers' social activator of social competence. And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preschoolers' attachment security and social competence. The attachment security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socially activating and cooperative competence.

### I. 서론

영아가 어머니 혹은 주양육자에게 형성하는 애착은 영아기에 완수해야할 주된 발달과업이다. 그리고 영아기의 애착은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발달과업,

그 중에서도 사회 정서적 영역의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나가는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부각된다.

그러나 애착의 중요성은 비단 영아기에서만 강조되는 것은 아니다. 애착이론에서 볼 때 영아의 애착

행동은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지만 애착의 질은 전생애에 걸쳐 비교적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성향을 나타내어 성인기의 자녀도 그 부모에게 애착감정을 가지고 있다. 즉, 애착은 영아기에만 나타나는 발달적 특성이 아니라 아동기 및 성인기에서도 인간의 적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발달적 특성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아기의 애착발달뿐만 아니라 영아기 이후의 애착발달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까지도 애착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영아기에 편향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이처럼 영아기 이후의 애착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연구방법론상의 제약을 들 수 있다. 많은 애착연구에서 아동의 애착 측정 위해 주로 Ainsworth의 낯선상황을 사용해왔다. 실험실에서 어머니 혹은 타인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는 이 방법은 만 12개월부터 18개월을 전후로 한 영아에게 적용 가능한 것으로 영아기 이후의 아동에게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단점을 지닌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애착 연구는 영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애착과 다른 발달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연구들도 대부분 영아기에 애착을 측정하고 유아기 및 아동기에 사회적 발달 혹은 인지적 발달을 측정하여 이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물론 유기체론적 관점에서는 초기의 적응이 현재와 미래의 적응을 촉진시켜주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영아기의 안정된 애착이 유아기나 아동기의 긍정적인 사회적 발달을 예측할 수 있다(Schneider-Rosen, 1990).

그러나 인간발달에서 초기 경험과 후기 발달과의 관계를 위의 입장과 다르게 보는 학자들도 있다. 이들은 아동발달에 초기의 부정적 경험이 영구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초기의 긍정적 경험이 이후에 경험하는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계속해서 완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즉, 발달에 있어서 반드시 초기 경험이 후기 경험보다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Cicchetti, Cummings, Greenberg, & Marvin, 1990). 이런 점은 다음과 같은 실증적 연구에서 뒷받침해준다. Vaughn,

Egeland, Sroufe, 및 Waters(1979)는 10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영아가 12개월일 때와 18개월일 때 애착유형을 측정하여 애착지속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가 생활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 경우 영아의 애착이 안정애착에서 불안정애착으로 변화하였다. 역시 영아가 12개월과 18개월일 때 Ainsworth의 낯선상황을 사용하여 애착을 연구한 Egeland와 Sroufe(1981)의 연구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maltreatment)을 많이 경험한 집단의 영아중 반 이상인 52%가 12개월과 18개월 때의 애착유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43명의 중류층 영아를 대상으로 12개월과 19개월에 애착을 측정한 Thompson, Lamb과 Easters(1982)의 연구 결과, 이들 중 반수가 애착유형이 변화하였으며 어머니의 취업 등으로 인한 양육환경의 변화가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을 통해서 비록 애착이론에서 애착의 지속성을 가정하고 이를 입증하는 실증적 연구들이 있지만 아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애착의 질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유아기라는 동일 시점에서 애착과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측정하여 이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영아기 이후의 애착 연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 결과로 유아 및 아동에게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형태의 애착측정방법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부모와의 짧은 격리와 심한 격리를 나타내는 사진 혹은 그림카드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토대로 애착에 대한 내적 수행모형을 반영하는 검사도구로 Klagsbrun과 Bowlby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수정해서 만든 Slough와 Greenberg(1990)의 격리 불안검사가 있다. 그리고 8개의 장면으로 구성된 Ainsworth의 낯선상황을 5~6세 아동에게 적합하게 수정해서 4개의 장면으로 줄여서 만든 Main과 Cassidy(1988)의 애착측정방법이 있다. 이와 더불어 Waters와 Deane(1985)은 영아기부터 아동초기까지의 비교적 다양한 연령에 적용 가능한 애착측정방법으로 애착 Q-set(AQS)을 개발하였다. 낯선상황을

통한 애착측정은 실험실내에서 행해지므로 실험실 외의 상황에 일반화하는데 있어서 제한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애착 Q-set은 실험실 상황이 아닌 가정에서의 애착 행동을 장기간의 관찰에 의해서 평가하므로 장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새로운 애착측정방법의 개발은 유아기 및 아동기의 애착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영아를 대상으로한 많은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형성에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어머니가 영아의 요구에 민감하며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고 일관성있는 양육행동을 나타낼 때 영아는 어머니에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비록 그 수에 있어서는 적지만 유아기 및 아동기를 대상으로한 연구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6세아를 대상으로 애착유형과 모자녀간 상호작용의 관계를 연구한 Solomon, George와 Ivans (1987)에 의하면 어머니의 지지적 수용태도와 아동의 능력에 대한 적극적 걱려는 안정애착과 관련이 있었고, 반대로 어머니의 지나친 관여, 어머니의 거부와 증오 및 어머니의 부적절한 역할행동은 불안애착과 관련이 있었다. Cohn, Cowan, Cowan과 Pearson(1992) 역시 어머니의 온정이 안정애착과 불안애착 집단에서 차이나게 지각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조은영(1996)에 의하면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방식은 아동의 애착표상중 애착 및 자주성 점수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민주적 양육방식은 아동의 자주성 점수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로 만6세 아동을 대상으로한 애착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홍계옥, 1995)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적절하게 한계를 설정하는 양육행동을 나타낼수록 자녀는 어머니에게 불안하게 애착하는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아기 및 아동기를 대상으로한 연구들에서도 영아기의 연구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반응적이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안정적인 애착형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발달특성으로 사회적 능

력을 들 수 있다. 이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발달하게 되며 사회성보다는 넓은 의미를 포함하며 환경에 적응하고 상호작용하며 대인관계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는 포괄적인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능력은 아동의 성, 형제관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의해 차이를 나타낸다(Cohn, 1990; 김상희, 1990; 박음임, 1988).

그리고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어머니가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고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행동에 한계를 지어주며 일관성 있게 아동을 대하는 민주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도움을 주는 반면, 권위주의적이고 비일관적이며 적대적이거나 과보호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졌다(Baumrind, 1978; Perry, Bussey, 1984; 박법실, 1987). 즉 양육자의 민감하며 적절한 반응과 합리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이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개체로 발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 있는 변인으로 어머니 혹은 양육자에 대한 애착을 들 수 있다. 애착이론에서는 아동과 주양육자간의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어린 시절 아동이 양육자와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얻은 경험들을 토대로 애착표상 혹은 내적수행모델을 형성하게 된다. 내적수행모델은 애착 대상 행동에 대한 해석과 예상을 가능하게 해주고 미래의 반응을 계획하게 해준다(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 애착대상이 반응적이고 지지적이면서 정서적으로 위안된다면 아동은 애착대상뿐 아니라 자신도 유능하며 사랑 받을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식한다. 그리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도 긍정적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며,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행동하므로 아동의 사회적 행동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특징 지워진다. 반대로 애착 대상인 부모가 거부적 혹은 무시적일 경우 아동은 부모에 대해 거부적인 내적수행모델을 형성함과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도 무가치하다는 내적수행모델을 형성한다. 이러한 내적수행모델로 인해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서 거부당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면서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Bretherton, 1985; Cassidy, 1990).

애착과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아기에 애착을 측정하고 2~3년 후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 연구들은 영아기 때 애착이 불안정한 유형으로 나타난 경우에 비해 안정 애착유형으로 나타난 경우,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반응적이며 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Sroufe, & Waters, 1977; Jacobson, & Willie, 1986; Park, & Waters, 1989), 사회적 성숙도와 인기도가 높았고(LaFreniere, & Sroufe, 1985), 지도력을 더 많이 나타내었으며(Waters, Wippman, & Sroufe, 1979), 감정이입적인 것으로(Jacobson, & Willie, 1986) 보고하였다. 그리고 안정애착으로 분류되었던 영아가 불안정 애착으로 분류되었던 영아보다 유아기 때 문제해결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응력이 높고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행동하였다(Matias, Arend, & Sroufe, 1978). 4세 유아를 대상으로 실험실 평가를 실시한 Tumer(1991)의 연구 결과, 불안정 애착을 보였던 남아는 안정 애착을 보였던 남아보다 더 공격적이고 파괴적이며 주의를 요하는 행동을 보였다. 이에 비해 불안정 애착을 보였던 여아는 안정애착의 여아들보다 의존적이며 덜 독립적이고 순응성을 많이 나타내 자신감이 결여된 특성을 보였다.

최근에 들어 몇몇 연구들은 유아기 및 아동기에 애착과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여 이들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Cohn(1990)은 불안정 애착을 보인 남아의 경우 안정 애착을 보인 남아에 비해 또래 혹은 교사로부터 덜 선호되었으며, 또래에게 더 공격적인 것으로 인식되었고, 교사로부터 유능하지 못하고 분해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내연구로 초등학교 1, 2,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김영지(1994)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감정이 안정적인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같은 결과는 노명희(1985)와 조병은 외(1985)의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 유치원 유아를 대상으로 한 홍계옥

과 최경순(1996)의 연구에 의하면 안정된 애착아일수록 유능성이 발달되는 반면, 불안정한 애착은 유아의 불안정성을 높이며, 비협조성을 높이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만 5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 어머니 및 교사를 대상으로 Slough와 Greenberg의 격리불안 검사를 사용하여 애착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연구한 이숙희와 김숙령(1996)의 연구에서도 애착과 사회적 능력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아동이 애착영역에서 점수가 높으면 긍정적인 측면의 사회적 능력은 높았고 부정적 측면의 사회적 능력은 낮게 나타난 반면 회피영역의 점수가 높으면 사회적 능력에서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조은영(1996)은 미국의 학령 전 아동을 대상으로 애착 표상과 사회적 능력을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의 강압적인 양육방식은 아동의 사회성을 낮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애착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서 안정된 애착을 가진 아동은 사회성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에서와 같이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애착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며, 조은영(1996)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애착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만을 살펴보았을 뿐 이들과 관련성을 갖는 주요 변인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고려한 연구는 없다. 그리고 조은영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애착과의 관계, 애착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각 각 독립적으로 분석하여 살펴보아 이들 세 변인들간의 관계에 관한 정보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4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애착 Q-set(AQS)을 사용하여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여 애착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애착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살펴보았고, 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애착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각 각 알아보고자 한다. 이밖에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

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아 애착이론에서 제시하는 내적수행모델의 영향력을 검증해보고자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애착연구와 애착과 관련 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어머니-자녀관계와 자녀의 발달적 특성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안정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3)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4)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안정성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만 4세를 지난 유아를 둔 44명의 어머니들이다. 먼저 44명의 연구대상자 중 일부(24명)는 박용임과 유명희(1997)의 애착의 지속성에 관한 단기종단적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이들 24명의 어머니만을 연구대상으로 삼기에는 그 수가 적어 추가로 연구대상을 표집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24명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학력이 모두 고졸이상이었으며 유아의 연령이 만 50개월에서 56개월에 속하였으므로 이런 기준에서 일치하는 성격을 가진 어머니들을 임의표집하였다. 모두 35명의 어머니들을 접촉하여 질문지 및 AQS를 배부한 결과 25명의 어머니들에게서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이 중 부실한 응답과 AQS 분류에서 오류가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난 후 최종적으로 20명의 어머니들에게서 얻은 자료를 기존의 24명의 연구대상에게서 얻은 자료에 추가하

였다.

남아 21명과 여아 23명으로 이루어진 이들 유아의 평균 연령은 만 51개월이었고 전체 범위는 49개월에서 56개월까지였다. 그리고 이중 20명의 유아는 형제가 없는 외동이었고, 21명은 형제수가 한 명이었으며 3명의 유아는 형제수가 두 명이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평균 32세였고 대부분이 30대 초반이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졸이하가 18명, 대졸 이상이 26명이였다. 그리고 전체 44명의 어머니 중 11명만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어머니는 전업주부였다.

### 2. 연구 절차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2단계에 걸쳐 시행되었다. 예비조사는 본조사에서 사용할 측정도구의 수정 및 요인분석 등을 위한 것으로, 만 4세에서 5세 사이의 유아들이 다니는 유치원 유아반의 어머니 40명에게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교사를 통하여 배부한 다음 회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을 측정하는 애착 Q-set(AQS)는 만 4세 전후의 자녀를 둔 5명의 어머니에게 연구자가 직접 90장의 카드로 된 측정도구(AQS)와 분류결과를 기록하는 용지를 전달하고 분류방법을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들의 분류방법에 대한 이해도 및 반응을 기초로하여 수정한 분류방법을 본조사에서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어머니 양육행동 질문지와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한 애착 Q-set(AQS), 그리고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 등이다.

#### 1)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는 아이오아 부모양육행동 척도(IPBI: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other Form)을 변안 수정한 홍계옥(1994)의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합리적 지도, 한계설정, 애정성과 반응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고,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65 ~ .83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합리적 지도는 자녀에게 수용 가능한 행동과 수용될 수 없는 행동의 이유를 밝혀주고, 그 이유를 자녀와 함께 생각해보는 양육행동을 말한다. 한계설정은 자녀의 생활에 제한을 정해두고 제한영역을 제시하며 이를 실행하는 양육행동을 나타낸다. 그리고 애정성이란 자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신체적 애정표현과 친밀성을 표현하는 양육행동들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반응성이란 자녀가 다쳤거나 괴로움을 나타낼 때 어머니가 자신의 일을 중단하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해주는 행동들을 나타낸다.

애착에 대한 연구들을 고찰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애착과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 것은 애정과 온정 등의 차원보다도 민감성 및 반응성 차원이 더 높은 관련성을 갖고 있었다(박응임,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들에 비해 애정성, 반응성의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본 척도가 애착이론을 검증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선정하였다.

## 2) 애착 Q-Set(AQS)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애착은 Waters(1987)의 애착 Q-Set(version 3.0)을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이것은 총 90장의 카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카드에는 가정과 일상적 상황에서 나타내는 영아의 구체적 행동을 기술하고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사용방법은 먼저 관찰자가 아동의 행동을 관찰한 후, 각 문항이 적힌 카드를 읽고 유아의 행동과 보다 유사한 문항이 적힌 카드는 높은 점수에 분류하고, 반대의 특성을 나타내는 문항이 적힌 카드는 낮은 점수에 분류한다. 이런 식으로 분류한 문항은 모두 1점에서 9점까지 9개의 범주로 나뉘어지며, 각 범주는 모두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다.

AQS를 만든 Waters(1985)는 문항 분류 시 훈련을 거친 다수의 관찰자가 여러 번에 걸쳐 관찰한 후 AQS를 분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훈련받지 않은 관찰자가 분류하였을 때도 신뢰할만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관찰하여 AQS를 분류할 때도 마찬가지로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어머니들에게 1주일 정도 가정에서 자녀의 행동을 관찰하게 한 후 AQS를 분류하게 했다. 그리고 연구대상 외에 몇몇 유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한 결과, 분류과정에서 처음부터 90장의 카드를 9개의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힘든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분류를 크게 두 단계로 나누고, 1단계 분류에서 세 범주(1, 2, 3점)로 문항을 분류하고, 2단계에서 이들을 각각 다시 세 범주로 분류하도록 해 최종적으로 1점에서 9점까지의 점수를 갖는 9개의 범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AQS와 분류방법에 관한 사항은 우편을 통해 연구대상 어머니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우편물이 도착한 후 각 어머니들에게 전화를 걸어 의문사항을 묻고 주의사항을 다시 한 번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식으로 분류가 끝난 AQS 결과는 개별적으로 우편을 통해 회수하였다.

유아의 애착안정성 점수는 분류에서 얻어진 각 문항의 해당 점수가 아니라 이 점수와 표준점수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여 얻어낸다. Waters와 Deane(1985)은 몇 명의 애착 전문가들에게 가장 안정된 유아를 가정하고 AQS를 분류하게 한 다음, 여기서 나온 점수를 토대로 표준점수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에게서 회수한 AQS 분류 점수와 Waters(1985)가 제시하는 표준점수간의 상관관계를 각 유아마다 산출하여 애착안정성 점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유아의 애착안정성 점수는 -103 ~ 677의 범위에 속해있었고, 이들의 평균은 298이며 표준편차는 206으로 나타났다.

## 3) 유아의 사회적 능력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어머니가 평가하는 것으로, Pease, Clark와 Crase(1979)의 Iowa Social Competence Scale: Preschool Form 중 어머니용 질문지를 번역, 수정한 후 요인분석을 거쳐 사용하였다. 학령 전 아동용 ISCS는 사회적 활동성(social activator), 과민성

(hypersensitive), 안정성(reassurance), 비협조성(noncooperative), 협조성(cooperative)의 5개 하위요인을 포함한 총 3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조사 결과, 34문항으로 된 ISCS[P]에서 우리나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제외한 후에도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가 낮아 이를 다시 요인 분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사회적 활동성(7문항), 안정성(6문항), 협력성(5문항), 과민성(5문항)의 네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사회적 활동성은 친구들과 놀이할 때 먼저 제안하거나 시작하고, 리더의 역할을 하며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는 행동 등을 말한다. 안정성은 낯선 상황에 잘 대처하거나 행동하고 낯선 이와도 상호작용을 잘하는 행동 등을 나타내며, 협력성은 자신에 대해 만족해하면서 타인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협조하는 행동이다. 마지막으로 과민성은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사소한 것에 화를 내고 불안해하며 당황하는 행동 등을 말한다.

각 하위요인별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alpha$ 는 사회적 활동성 .79, 안정성은 .85, 협력성은 .72, 그리고 과민성은 .67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처리를 위해 Window 용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빈도 및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였고, 인구학적 배경변인

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으로 삼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애착과 사회적 능력이 인구학적 배경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영아의 성,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표 1).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어머니 양육행동 중 한계설정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유아의 애착안정성 점수는 유아의 성, 형제유무, 양육의 종류(어머니 양육 혹은 타인 양육 등), 어머니의 교육수준 및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서는 각 연구문제별로 나타난 결과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 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안정성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표 1>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차이

종속변인	독립변인	전문대졸 이상(N=26)		t
	고졸이하(N=18)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합리적 지도	5.08 (.89)	5.78 (.60)	-2.90**	
한계설정	4.88 (1.19)	5.18 (.92)	-.97	
애정성	4.14 (.24)	4.86 (.69)	-3.04**	
반응성	5.17 (1.24)	5.88 (.84)	-2.29*	

\* p<.05 \*\* p<.01

〈표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안정성간의 상관관계

하위요인	합리적 지도	한계설정	애정성	반응성
애착안정성	.17	.29	.21	.46**

\*\* p&lt;.01

〈표 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하위요인	합리적 지도	한계설정	애정성	반응성
사회적 능력				
사회적 활동성	.33*	.19	.18	.21
안정성	.24	.10	-.08	.01
협력성	.23	.11	.04	.09
과민성	-.05	-.29	-.22	.22

\* p&lt;.05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애착안정성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반응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어머니가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나타낼수록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 점수가 높은 것을 말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한계설정은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p<.10 수준에서 애착안정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어머니 양육행동의 다른 하위요인인 애정성 및 합리적 지도는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합리적 지도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 중 사회적 활동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가 자녀에게 합리적 지도의 양육행동을 많이 나타낼수록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밖의 다른 하위요인들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에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한계설정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 중 과민성과 p<.10 수준에서 부적 상관관계의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 3.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사회적 능력

상관관계분석 결과 〈표 4〉에서 나타나 바와 같이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애착안정성 점수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 중 몇몇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과 협력성은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유아의 안정성과 애착안정성은 정적 상관(p<.10)을, 그리고 유아의 과민성과 애

〈표 4〉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사회적 능력

하위요인	애착안정성
사회적 활동성	.34*
안정성	.29
협력성	.45**
과민성	-.26

\* p&lt;.05 \*\* p&lt;.01



착안정성은 부적 상관( $p < .10$ )의 경향성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활동, 협력성이 높게 나타나 친구들과의 놀이에서 적극적이며 활발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협조하는 행동을 많이 나타냄을 알 수 있다.

#### 4.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에서 제시된 상관관계분석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 하위요인과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간에서만 유의한 상관관계( $r = .33, p < .05$ )가 나타났고,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사회적 능력과의 상관관계에서도 사회적 활동성이 유의한 관계( $r = .34, p < .05$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와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이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와 애착안정성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관계가 없어 (<표 2> 참조) 이들 변인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표 5>와 같이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이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11.8%의 설명력을 보였다. 그러나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는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을 설명해주는 유의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행동을 측정하고,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반응성이었다. 즉, 자녀가 신체적 고통, 정서적 괴로움을 나타낼 때 어머니가 자신의 일을 중단하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형태로 자녀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유아는 어머니에게 더 안정적으로 애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밖의 하위요인들 합리적 지도, 애정성, 한계설정 등은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양육의 민감성이란 애정, 온정성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 아동의 욕구에 적절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융통성 있게 적응해나가는 기술이라고 주장한 Ainsworth의 애착이론(Ainsworth, & Marvin, 1995)을 지지하는 것으로, 다른 애착연구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Belsky, Rovin, & Taylor, 1984; Isabella, & Belsky, 1991)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유아가 어머니에게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데는 어머니의 애정성 혹은 합리적 요인보다는 반응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합리적 지도는 아동의 사회적 활동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자녀의 말에

<표 5>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유아의 사회적 능력		
	B	$\beta$	T
애착안정성 합리적 지도	1.395	.344	2.375*
	$R^2 = .118$ $F = 5.64^*$		

\*  $p < .05$

귀 기울이며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가 사회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다 긍정적이고 자녀의 감정을 중시할 때 자녀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특성을 갖게된다는 선행연구(Baumrind, 1978; Putallaz, 1987)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세째, 유아의 애착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서는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도 높은 것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유아의 애착안정성은 사회적 능력 중 협력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에 대해서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신에 대해 만족해하면서 타인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협조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협력성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애착대상에게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애착의 내적수행모형을 형성한 아동은 자신을 가치 있고 신뢰롭게 받아들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반영되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형성하게 된다는 애착이론의 내적수행모형 가정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밖에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유아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며, 활동을 먼저 제시하는 등의 사회적 활동성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낯선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낯선 이와와 상호작용 능력을 나타내는 안정성이 높았고, 반대로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민감하며 불안정한 반응을 보이는 과민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애착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본 선행연구들(Jacobson, & Willie, 1986; Park, & Waters, 1989; Cohn, 1990; 김영지, 1994; 노명희, 1995; 조병은 외, 1995; 이숙희와 김숙령, 1996; 홍계옥과 최경순, 1996; 조은영, 1996)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결과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사회적 활동성을 11.8%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는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을 설명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은 결과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유아의 애착은 내적수행모넨로 작용하며 이것은 개체의 내면화된 특성으로 자리잡게 되므로 유아의 다른 발달적 특성인 사회적 능력의 발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어머니가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낼수록 유아는 어머니에게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하였으며, 어머니가 합리적 지도의 양육행동을 많이 나타낼수록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이 발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가 어머니에게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할수록 유아의 협력성 및 사회적 활동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은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11.8%의 설명력을 갖는다.

이상의 연구는 유아기를 대상으로 한 국내 애착 연구가 적고, 애착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뿐 아니라 어머니와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이들간의 관계양상을 밝혀주었으며 애착이론에서 가정하는 내적수행모형을 검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적어 여기서 나타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점을 지닌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 그리고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모두 어머니에 의해서 측정되거나 평가되어 이로 인한 어머니의 편견 및 오차를 통제할 수 없었다는 단점을 지닌다. 그리고 애착 Q-set(AQS)을 어머니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우편을 통해 어머니에게 전달한 점과 AQS를 분류할 때 90장의 카드를 한 번에 분류하지 않고 두 단계로 나누어 분류하게 한 점들은 AQS의 원저자인 Waters(1987)의 분류 및 실시방법과 차이가 있으므로 자료수집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인간의 발달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어머니

외의 아버지 혹은 다른 성인들과의 관계도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와의 애착안정성 등 어머니의 특성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다양한 애착관계와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애착이론에서 Bowlby가 자아-인지와 자아-정서의 두 개념을 합쳐놓은 개념으로 제시한 내적수행모델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회적 발달 뿐 아니라 아동의 자아개념과 애착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 ■ 참고문헌

- 1) 김상희(1989). 형제간 및 또래간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가족인구학적 변인.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2) 김영지(1994).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애착과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3) 노명희(1995).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 4) 박범실(1987).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5) 박응임(1988). 사회계층에 따른 가정환경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6) 박응임, 유명희(1997). 애착의 지속성에 관한 단기종단적 연구: 영아기의 낯선상황 애착유형과 유아기의 애착안정성. 아동학회지, 18(2), 33-46.
- 7) 이숙희, 김숙령(1996).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1), 87-100.
- 8) 조병은, 박성연, 유은희, 이정순, 유명희, 이 숙, 김상희, 최혜경, 박응임(1995). 3세대를 통해서 본 모-자녀 애착관계와 사회적 능력: 전생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86-93.
- 9) 조은영(1996). 어머니의 아동양육 방식이 5세 아동의 애착관계와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7(1), 213-226.
- 10) 홍계옥(1995).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 애착행동간의 관계. 고려대 박사논문.
- 11) 홍계옥, 최경순(1996). 유치원 유아의 모자녀간 애착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1), 101-116.
- 12) Ainsworth, M.D.S., Blehar, M.C., Wal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 Erlbaum.
- 13) Ainsworth, M. D. S., & Marvin, R. S.(1995). On the shaping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An interview with Mary D. S. Ainsworth(Fall 1994). In E. Waters, B. E. Vaughn, G. Posada, & K. Kondo-Ikemura(Eds.), *Caregiving, cultural, and cognitive perspectives on secure-base behavior and working models- new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60(pp,3-21).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4) Baumrind, D.(1978). Parental disciplinary patterns and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Youth and Society*, 9, 239-276.
- 15) Belsky, J., Rovine, M., & Taylor, D.(1984). The origi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 Maternal and infant contributions. *Child Development*, 55, 718-728.
- 16) Bretherton, I.(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50(pp, 3-35).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7)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olds.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 (pp.273-308).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8) Cassidy, J.(1990).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in the study of attachment and the self in young children.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pp.273-308).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9) Cicchetti, D., Cummings, E. M., Greenberg, M. T., & Marvin, R. S.(1990).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on attachment and research.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pp. 3-4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 Cohn, D. A.(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21) Cohn, D. A., Cowan, P. A., Cowan, C. P., & Pearson, J.(1992). Mother's and father's working models of childhood attachment relationships, parenting styles, and child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iatry*, 4, 417-432.
  - 22) Egeland, B., & Sroufe, A.(1981). Attachment and early maltreatment. *Child Development*, 52, 44-52.
  - 23) Isabella, R. A., & Belsky, J.(1991). Interactional synchrony and the origi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A replication study. *Child Development*, 62, 373-384.
  - 24) Jacobson, J. L. & Wille, D. E.(1986). The influence of attachment pattern on developmental changes in peer interaction from the toddler to preschool period. *Child Development*, 57, 338-347.
  - 25) LaFreniere, P. J. & Sroufe, A.(1985). Profiles of peer competence in the preschool: Intercorrelation between measures, influence of social ecology, and relation to attachment history. *Developmental Psychology*, 21, 56-69.
  - 26) Main, M. & Cassidy, J.(1988). Categories of response to reunion with parent at age six : Predictable from infant attachment classifications and stable over a one-month period. *Developmental Psychology*, 24, 415-426.
  - 27) Main, M., Kaplan, N., & Cassidy, J. C.(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50(pp.60-104).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8) Matas, L., Arend, R. A., & Sroufe, L. A.(1978). Continuity of adaptation in the second year: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later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49, 547-556.
  - 29) Park, K. A., & Waters, E.(1989). Security of attachment and preschool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0, 1076-1281.
  - 30) Pease, D. Clark, S. G., & Crase, S. J.(1979). Iowa social competence scales: School age and preschool manual. Iowa State Research Foundation, Inc.
  - 31) Perry, D. G., & Bussey, K.(1984). Social development. NJ: Prentice-Hall.
  - 32) Putallaz, M.(1987). Maternal behavior and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58, 324-340.
  - 33) Schneider-Rosen, K.(1990). The developmental reorganization of attachment relationships: Guidelines for classification beyond infancy.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pp. 3-4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34) Slough, N. M., Greenberg, M. T.(1990). Five-year-olds' representations of separation from parents: Responses from the perspective of self and other. In I. Bretherton & M. W. Watson(Eds.), *Children's perspectives on the family*,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48, 67-84,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35) Solomon, J., George, C., & Ivans, B. (1987). Mother-child interaction in the home and security of attachment at age 6.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the Child Development, Baltimore, MD.
- 36) Sroufe, L. A., & Waters, E.(1977).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construct, *Child Development*, 48, 1184-1199.
- 37) Thomson, R. A., Lamb, M. E., & Eastes, D.(1982). Stabil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and its relationships to changing life circumstances in an unselected middle-class sample. *Child Development*, 53, 144-148.
- 38) Turner, P. J.(1991). Relation between attachment, gender, and behavior with peers in preschool. *Child Development*, 62, 1475-1488.
- 39) Vaughn, B. E., Egeland, B., Sroufe, L. A., & Waters, E.(1979). Individual difference in infant-mother attachment at 12 and 18 months : Stability and change in families under stress. *Child Development*, 50, 971-975.
- 40) Waters, E.(1995). *Attachment Behavior Q-set (Version 3.0)*. In E. Waters, B. E. Vaughn, G. Posada, & K. Kondo-Ikemura(Eds.), *Caregiving, cultural, and cognitive perspectives on secure-base behavior and working models- new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60(pp.111-132).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41) Waters, E., & Deane, K.E.(1985).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 Q-method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pp.41-65).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209).
- 42) Waters, E., Wippman, J., & Sroufe, L. R. (1979). Attachment, positive affect, and competence in the peer group: Two studies in construct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0, 821-829.